메트로 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제2852호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제2852호 www.metroseoul.co.kr

야쿠르트 아줌마 시민이 함께 만든 거대한 '김장하트'

한국야쿠르트와 서울시는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야쿠르트 아줌마와 임직원 1500여 명, 서울 시민 1500여 명 등 약 3000여 명이 동참해 총 130t의 김치를 버무렸다. 이 김치들은 전국 2만 5000여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한국야쿠르트는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김장을 한 기록으로 월드 기네스 인증도 신청할 계획이다.

/손진영기자 son@

호텔·미술관 빰치는 요즘 병원

전 병실 1인실·스마트 진료·갤러리 등 명품화 전략 – 환자들 "찾기 편안" 환영

특정 환자를 위해 진료를 세분화하고 낯선 분위기를 편안한 환경으로 바꾸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로비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시키는 등 병원들은 끊임없는 변신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명품 병원 꿈꾸는 대학병원

이화여대 의료원은 제2부속병원 건립과 함께 국제화를 선언했다. 현재 건립 중인 제2부속병원에서는 심혈관질환, 뇌졸중·암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특성화하면서 모든 병실을 1인실로 구성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여성 및 지역밀착형이라는 강점을 살려 이 분야에서 특화된 병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특히 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제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스마트병원(Smart Hospital) 솔루션을 분당서울대병원에 적용했다. 솔루션은 환자가 IT기기를 이용해 진료 및 검사 접수는 물론 상세 의료정보 조회, 대기시간 확인, 진료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을지대병원 역시 지난 4월 디지털 병원의 핵심 사업인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병원의 모든 의료정보 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과 데스크톱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전자의무기록, 병원 그룹웨어, 행정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건국대병원은 예방과 관리를 화두로 한 헬스케어센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병원의 인테리어에 변화를 줬으며 휴식과 건강검진을 동시에 잡는 '스마트 휴(休) 프로그램'과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돕는 '헬스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의생명연구기관 '에비슨생명연구센터(Avison Biomedical Research Center)'를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연구 인프라를 개선해 연구중심 병원으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 시설도 마련했다.

◆나만의 개성을 살려라

종합병원과 개원의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명품 대열 합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많은 변신은 병원을 지역 주민과 환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

부산 온종합병원은 대강당을 문화공간으로 개방해 다양한 건강·문화 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또 서울 시냅병원은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병원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고 매달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음악회를 열기도 한다.

이와 함께 연세스타피부과는 연구하는 병원을 지향하며 매년 평균 1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 질환에 따라 라인업된 다양한 레이저 장비를 갖추고 있어 환자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튼튼병원은 지난 3월부터 노원 튼튼병원과 구로 튼튼병원에서 일요 진료를 시작했다. 향후 은평, 청담 등 전 네트워크로 일요 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튼튼병원은 해외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립병원 의료진이 고주파수핵감압술과 신경성형술을 참관했으며 9월에는 의정부 튼튼병원에서 이탈리아 카레기대 지안카를로 구이지르디 교수가 공동으로 허리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중독법'에 기죽은 지스타

오늘 부산서 개막 – 메이저업체 대거 불참 부스 줄어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수많은 우려를 안고 14일 나흘 일정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게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탓에 '지스타 2013'은 출발 전부터 파행 가능성을 예고했다.

우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B2C관에 부스를 마련한 메이저 업체가 2곳뿐이다. 미국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면 토종 업체는 넥슨이 유일하다.

지스타를 빛내야 할 국내 주요 업체들이 참가를 꺼린 탓에 B2C관은 지난해 1385부스보다 150부스 줄어든 1235부스로 운영되며 일반 관람객에게 낯선 외국계 기업의 자리가 됐다.

반면 기업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B2B관에는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엑토즈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네이버, CJ E&M 게임빌, 컴투스, 엠게임 등 메이저 업체가 고루 참여한다.

즉 소비자를 위한 이벤트 성격이 강한 지스타에서 고객보다는 비즈니스에 주력하겠다는 게 이들 업체의 생각이다.

이는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법' 발의 등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정치권의 풍토 탓이라는 지적이다. 지스타 불참은 차라리 애교 수준이고 아예 사업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스타를 아시아 대표 'IT 이벤트'로 만들고자 하면서도 게임을 마약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게임업계와 지스타 방문객, 해외의 수많은 시선은 게임을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양다리' 기치관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부산=박성훈기자 zen@

지스타 특집 ▶▶10~12면

'환율전쟁' 국민은 불안하다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로 전 세계 환율전쟁이 재현될 조짐이다.

ECB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25%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지난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물가 상승률이 0.7%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탓이다.

ECB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자 체코와 호주, 뉴질랜드 등 경기 침체에 빠진 신흥국들은 환율 방어에 나섰다. 통화가치 강세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발 빠른 움직임 속에 우리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심히 궁금하다. 우리도 세계적인 환율전쟁에 앞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준비할 때다. 무엇보다 외환 보유액을 늘려 급격한 달러화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완화 조치를 거두지 않는 이상 신흥국의 환율 경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850억 달러(약 91조원) 규모의 국채를, 일본은 70조 엔(약 752조원) 규모의 국채를 매달 사들이고 있다. 금리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도 큰 문젯거리다. 금리 급등이 서민경제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 구조를 감안해 수출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환율 관리가 필요하다. 뒷짐 지고 사태만 관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전교조 1심판결 때까지 합법노조"

법원, 법외 통보 효력정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인용문을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공식 통보했고, 교육부는 이튿날 전교조의 전임자 78명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 자격 박탈 등을 명령했다. /김현준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무성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화록 유출·열람의혹 김무성 의원 검찰 출석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13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저는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며 "대화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 유출 논란에 휘싸였다. /김현정기자

푸틴 말 많았던 17시간 돌연 당일치기 · 정상회담 지각 · 오후 4시 오찬

한·러 정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박근혜(오른쪽)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양 정상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선진화법' 여의도 전운

새누리, 법개정·헌법소원 청구 공식화 — 민주 "적극 찬성해놓고 딴소리"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얼룩진 정국의 또 다른 불씨로 떠올랐다.

법안에 불만을 표시하던 새누리당은 13일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른 시일내 개정안 제출

최경환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을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소수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가 당시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은 국회에 의결 기준이 과반이든, 5분의 3이든 상관없이 정당 간 협의와 타협의 정치를 원한다"며 "정국 경색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풀어낼 의지가 없어서이지 애꿎은 법을 탓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현진기자 m.kim@metroseoul.co.kr

김진태 "삼성 떡값 10원도 받은 적 없다"

청문회 야당 추궁에 반박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제기한 과거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신 의원은 '삼성관리 의혹 검사(2000~2002년)'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김 후보자를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조준웅 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검찰 출신 새누리당 현역 의원 2명의 명단과 당시 직책이 적혀있었다.

또 "3년간 검찰 관리 대상자로 명단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1년 3회(설날, 여름휴가, 추석) 이상 각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수수함" "로비 금액 최대 1000만원~2000만원" 등의 내용과 함께 김 후보자의 경우 '대검 범죄정보제1담당관'(2001년 4월 기준), '대검 중수부 수사2과장(2002년 2월 기준)' 등 2차례 표기됐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삼성이 거의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삼성 관리 대상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관리 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삼성으로부터 떡값은 물론 단돈 10원도 그냥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현준기자

김진태 vs 김진태 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진태(왼쪽)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같은 검사 출신이자 동명이인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후보자가 답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연합뉴스

1528억원' 세계 최고가 그림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사상 최고가인 1억4240만 달러(약 1528억원)에 팔린 영국 표현주의 작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회화 작품 '루시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 이 작품은 베이컨이 그의 친구이자 동료 화가인 프로이트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세 폭짜리 회화 작품으로 1969년작이다 /AP 연합뉴스

시간제 일자리 확 는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1만6500명 채용… 중소기업 임금 절반 지원해주기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 4000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만6500명 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침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8면>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 평가 시 채용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 평가 지표 및 채용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국공립학교는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교육부 주도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반 관람이 시작됐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서울관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부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고 두자녀학 공제 시 반영폭을 늘리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임금의 근로시간 비례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한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서울대발 '정시변경 도미노'

내년부터 가군모집 방침 연세·고려 등 주요대 비상

서울대가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모집군을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꾸기로 해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상위권 주요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대는 13일 "내일 열리는 학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다"며 "2월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나군 전형 일정이 늦어 합격자 발표 일자를 최대한 당기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군에 복수 지원할 수 있으나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대는 나군, 연세대·고려대는 가군에 있어 서울대에 지원한 수험생 상당수는 연세대나 고려대에도 원서를 넣었다.

하지만 서울대가 가군으로 이동하고 연세대·고려대가 계속 가군에 남으면 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폭이 좁아진다.

따라서 서울대가 모집군을 이동하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다른 대학도 연쇄적으로 모집군을 바꾸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유현경기자

뉴스 & 뉴스

필리핀서 연락 두절된 한국인 23명으로 늘어

● 태풍 하이옌으로 1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중부 태풍 피해 지역에서 연락 두절된 한국인 수가 23명으로 늘어났다. 13일 주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타클로반 등 레이테섬 주변에서 모두 55명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신고됐고, 32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필리핀을 도와주세요" 13일 서울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길거리 모금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박혐의 경찰에 잡힌 청소년 5년간 554명

● 최근 5년간 500명이 넘는 청소년이 도박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현표(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이 도박 관련 혐의로 검거한 14~20세 청소년은 554명이었다. 2009년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97명, 2011년 75명, 2012년 109명, 올해 31명이 검거됐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인상파 화가 모네 출생

1840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상파 회화의 개척자이자 지도자인 클로드 모네가 태어났다. 북안 지방인 르아브르에서 소년시절을 보내던 모네는 풍경화가 부댕의 지도로 회화에 눈을 뜨고 파리로 가서 마네, 피사로, 시슬리, 르누아르 등과 사귄다. 이 외에서도 빛의 효과와 순간을 포현하는데 주력한 모네는 34세에 동료들과 함께 제1회 무명예술가전람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그의 그림 '인상, 해돋이'에 쏟아진 야유가 '인상파'라는 화파로 불려지는 계기가 됐고 이후 '포플러 노적가리', '루앙성당', '수련' 등 연작 그림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한방칼럼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어쩌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혈적,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만성두통이나 현기증, 목, 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구역메스꺼움,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안면피부질환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끼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방해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 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입안에서 나지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된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나 대개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탁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한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관질환성 빈혈, 혈우병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앉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치료, 정장요법 등으로 인체 전체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이 있게 되어 오히려 몸에 유해한

한의학박사 허형구 원장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정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이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정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고품격 해수욕장 만들기

시 TF팀 구성 종합책 수립

부산시가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인 해수욕장 관리를 보다 체계화한다.

부산시는 해수욕장의 품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고품격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백사장 관리·보안 정비, 소규모 양빈(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것) 등 일반 관리 업무는 구·군에서, 연안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설개선 사업은 부산시에서, 해수욕장 관련 백사장 모니터링과 대규모 복원사업 등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맡아 백사장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분리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가 주도하는 해수욕장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구·군 담당,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 사빈관리 기획팀(TF)'을 구성, 운영한다. TF는 해수욕장별 시반 현황,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해수욕장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해수욕장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도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분야별 연구를 거쳐 2015년께 해수욕장별 발전 방안을 담은 '부산시 해수욕장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비엔날레 머리 맞댄다

학술심포지움 29·30일 열려 - 피츠버그대 스미스 교수 등 미술 권위자 대거 참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2013 부산비엔날레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미술과 비엔날레 심포지엄'을 주제로 부산시립미술관과 센텀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심포지움에는 피츠버그대학교의 테리 스미스 교수와 독립큐레이터인 좀 도엘라 등 현대미술과 비엔날레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참가자들은 유수의 국제 전시를 직접 기획 또는 운영해온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먼저 포럼 1부에서 '비엔날레 현상학와 위기'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된 테리 스미스는 피츠버그 대학교 앤드류 W 멜론의 교수이자 유명 미술사학자다.

그는 현대미술 관련 강의와 전시기획에 대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다. 2010년에는 유명 예술 비평상인 프랭크 주이트 마더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대미술의 권위자다. 테리 스미스와 함께 1부의 현상을 맡은 유진상 교수 역시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유명 인사다. 최근에는 KIAF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기획자다.

포럼 2부에서는 '비엔날레 내부에서 보는 혁신과제 및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좀 도엘라와 토론자인 구로다 라이지 역시 다수의 대형 국제 전시 기획에 참여해온 실무 전문가들이다. 네덜란드 출신인 그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리버풀 비엔날레의 부집행위원장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프로그램디렉터로 무려 13년간 리버풀비엔날레를 기획해왔다. 유럽의 비엔날레 연대인 '유리피언 바이에니얼 뉴욕'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부산비엔날레 2005년도 학술심포지움에 참여해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한편 3부에서는 안나 하딩을 비롯해 김반 투어,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인 박찬응, 미술평론가인 이계훈 등 현대미술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엔날레와 다른 다양한 주제로 토론할 계획이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동서대 이선림씨 美 패션공모전 수상

동서대는 이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이선림(4학년·사진)씨가 국제 패션디자인 공모전에서 '마니쉬 아로라' 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수상의 영광과 함께 국제적 패션하우스 마니쉬 아로라에서 3개월간 인턴십의 기회를 가진다.

아츠 오브 패션 파운데이션(이하 AOF)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비영리재단으로 국제적인 패션공모전이다.

이번 대회에는 37개국 120개 학교 365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지열한 예선을 거쳤다. 이 중 단 50명만이 본선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진출자들은 각각 2벌의 옷을 제작해 지난 24일 2013 AOF 컴피티션 패션쇼 본선 무대에 섰다. 그 중 7명만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그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믿고 밀어주신 부모님과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으로 불투명했던 디자이너로서의 꿈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하균기자 jhk@

우리가 만든 꽃꽃이 작품 어때요? 13일 오전 부산 중구 혜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꽃꽃이 작품을 자랑하고 있다. 부산농협은 오는 25일까지 부산지역 중·고교 10곳에서 '꽃사랑농심사랑 꽃꽃이 교실'을 운영한다. /뉴시스

신항 유류중계기지 건설 사실상 무산

부산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신항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유류중계기지는 항만에 대규모 저유시설과 선박 계류시설을 지어 운항 중인 선박에 해상에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시설이다. 부산항 신항이 물류허브항만으로 발전하는데 필수 시설이다.

13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세 번째로 연기한 착공 기한인 이달 11일까지 유류중계기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란 셈이다.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실시계획 승인을 해줄 때 착공기한을 이달 11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달 11일은 세 번째로 연기한 착공기한이었다.

그런데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인 부산마린엔오일(주) 측이 내년 1월 말까지 '지유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부산항만공사가 받아들였다. 이어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내년 1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아직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또 한 번 위기는 넘겼지만 전망은 어둡다. 내년 1월 말까지 거액의 투자금을 낼 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지역실업률 6개월째 3%대

부산지역 실업률이 6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13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0월 부울경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지역 실업자수는 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14.9%), 전월 대비 1000명(-0.8%) 각각 감소했다.

실업률은 3.5%로,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뉴시스

무릎 '뚝뚝' 소리난다면 연골연화증 의심해야

닥터 Q&A

부민병원 관절센터 정유성 과장

Q 최근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제는 무릎 주변이 붓고 통증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인가요?

A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인대나 힘줄이 뼈와 부딪쳐 나는 소리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관절 주변이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날 경우 대개 연골연화증, 반월상연골판파열, 추벽증후군 등을 들 수 있으며 관절염 또한 서걱서걱 하는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연골연화증은 무릎 슬개골 밑에 있는 연골이 물렁물렁해지고 탄력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스포츠 활동 등으로 무릎이 심하게 뒤틀려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반월상연골이 파열되면 무릎이 쑤시고 아프며 오금이 땅기면서, 다리가 저려 무릎을 제대로 구부리고 펴지 못하게 됩니다. 추벽증후군은 활액막의 얇은 띠인 추벽이 등산이나 쭈그려 앉아서 하는 집안일 등으로 두꺼워지면서 대퇴 연골과 마찰을 일으켜 우두둑 소리가 나고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 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리면 소리가 나며, 엄지손가락으로 무릎의 앞쪽을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면 추벽증후군입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재활운동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심할 경우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관절내시경수술은 직접 모니터를 보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통증이 적으며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예방을 위해 운동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무릎근력 강화운동의 꾸준한 시행과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투성이'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 1년만에 곳곳 균열… "지반 내려앉아 발생한 듯"

낙동강 자전거도로가 개통 1년이 넘으면서 곳곳에 균열이 발생, 자전거 사고 위험이 높다.

날림공사로 인한 자전거도로의 구조적인 결함이 균열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오후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내 자전거길에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폭 3m가량의 붉은색 시멘트 자전거길 곳곳에는 금이 쩍쩍 나 있었다.

심한 곳은 자전거 바퀴가 쏙 빠질 정도인 10㎝ 이상 큰 균열이 생겨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부산 지전거길 중 화명생태공원 구간이 크고 작은 균열이 많다고 자전거 이용객은 말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자전거길을 이용한다는 최모(58·북구 덕천동 자영업)씨는 "2012년 개통 당시부터 다녔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 자전거길 균열이 많이 생겼다"며 "행여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산악자전거로 양산 호포까지 다녀온다는 라이더 김모(49·사상구 괘법동)씨는 "자전거길 표면에 단순하게 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반이 내려앉아 발생한 균열로 보인다"며 "공사 기한을 맞추려 서두르다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60대 남성이 화명생태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자전거길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인정된다며 부산시와 보험사로부터 52만원 상당을 배상받기도 했다.

이날 자전거길을 만든 모 건설사는 인부를 동원해 자전거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쉬운 시멘트와 모래를 균열이 생긴 도로 틈 사이로 쏟아부어 공간을 메우는 작업이었는데 소요되는 시멘트량이 상당했다.

공사 관계자는 "도로 아래 공간을 채워넣는 작업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안전평가자는 낙동강 종주코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해 부산시 구간 10개소(화명 6곳, 삼락 4곳)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대부분 안전시설 도색이나 표지판 등에 그쳤고 자전거길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다.

김경원 습지와새들의친구 사무국장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유지보수비용만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하천부지 특성상 침수 때는 지전거길이 물에 잠겨 더 큰 파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낙동강 자전거도로가 개통 1년이 넘으면서 곳곳에 균열이 생겨 자전거 사고 위험이 높다.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자전거길 곳곳에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리모델링

부산 어린이대공원이 유원지 지정 42년 만에 테마형 공원으로 재단장한다.

부산시는 1971년 성지곡 유원지로 지정된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을 자연친화형 놀이동산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용역 기초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역 대상은 동물원 건립 부지와 기존 놀이동산 부지, 수원지 및 주변 부지 등 10만8000㎡로 어린이대공원 전체 부지 498만㎡의 45%가량이다.

시는 또 성지곡수원지와 어린이대공원을 연결하는 케이블카와 수원지 공간을 살린 워터스크린 등도 검토안에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놀이동산이 있던 곳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산악형 레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용역을 마친 뒤 의견 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5년 하반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어린이대공원을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동물원 '더 파크'와 연계해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표"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년간 영유아보육료 8100만원 중복지급"

영유아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은 13일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부터 2년간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8100만여 원이 중복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보육료가 196건에 2258만4000원, 양육수당이 458건에 5900만원 등 모두 654건에 8159만원이 중복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중복 지급 318건 3451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에 들어가 이 가운데 291건 3100만여 원은 환수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중복 지원 336건 4700만여 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굿부산 스토리텔링 공모 대상에 김은정씨 뽑혔다

부산시는 제3회 부산시 공식 블로그 굿부산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김은정(22·경기도 의정부시)씨의 '부산 아지매의 하스피탈'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작은 부산을 여행하며 만난 부산 아지매들의 투박한 사투리와 무뚝뚝함에 적잖이 상처받지만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의 보살핌을 계기로 오해를 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에 이어 최우수상은 변재영(41·대구시)씨의 '용두산공원의 단상'이 받았다. 변씨는 어릴 적 첫사랑이었던 애인과 용두산공원에서 재회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유로존도 美·中도 뚜렷한 회복

OECD 회원국 경기선행지수로 본 내년 경제 전망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 ·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살아나면서 올해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나라 역시 내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 설비투자가 부활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올해보다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9월 평균 100.7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

OECD는 미국 · 유럽 · 중국이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가 앞으로 몇 달간 소폭이나마 꾸준히 상승해 내년 성장폭은 올해보다 클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브라질·인도·러시아 등 대부분의 신흥국은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전망이다.

OECD는 신흥국 가운데 중국이 예외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종합선행지수를 볼 때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성장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신흥국 중엔) 중국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중에선 유럽의 회복이 두드러진다. OECD는 "현재 1위 경제국인 독일의 주도하에 2~3위 국가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밀어주면서 올해 0.3% 위축됐던 유로존의 경제가 내년엔 0.8% 성장으로 반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 역외국인 영국의 회복세도 견조해 앞으로 몇 분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경제의 수요 변수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 정책이 꼽혔다. 특히 그동안 민간 위주의 성장이 이뤄졌던 미국에서 공공 부문의 잠재력이 뒷받침되는 정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내수 부활 … 관건은 환율

내년 한국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대외 경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동안 위축됐던 설비투자가 이뤄지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환화 강세 우려는 남아있다.

유신익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흑자폭은 원화 강세와 신흥국 등화 절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올해보단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그러나 대내 부문에서 설비투자가 7.8% 늘어나면서 투자 위축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대외 경기의 안정성을 토대로 투자가 늘면서 고용→소비→생산의 증대가 이어져 내수 경기가 개선되는 촉발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나빠질 우려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2013년 전세가 > 2002년 매매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2002년의 매매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는 올해 11월 현재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금이 평균 81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구별로는 서초구(885만→1340만원) 송파구(587만→1191만원)가 2배 수준으로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은행들 "제2동양CP, 안돼"

소비자보호 캠페인 '붐'

주요 은행들이 동양그룹 사태를 교훈 삼아 불완전 판매 축소, 소비자 보호 등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은행들도 동양사태로 인한 염려 때문에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거나 단순한 상품 판매에도 더욱 신중해진 분위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서울 다동 본사 앞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11월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민원 감축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소비자 보호 강화 흐름에 발맞춰 소비자보호본부를 지난 7월 신설했다. 특히 소비자보호본부에 신보금 여성 본부장을 신규 선임해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고객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고객 만족도 관리 지표인 소비자보호지수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안내했는지 여부 등 판매 관리 전반의 '완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성 특유의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현지기자 srl@

삼성전자 휴대폰 6대륙 점유율 1위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사상 첫 전 대륙 1위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3분기 지역별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량(공급 기준) 집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북미·서유럽·아시아 태평양·중남미·동유럽 등에서 기존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만년 2위에 그쳤던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톱을 차지했다. 중동·아프리카의 경우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24.4%에 그쳐 1위였던 노키아(45.9%)에 20%포인트 이상 뒤졌다. 하지만 올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36.4%의 시장점유율로 노키아(33.9%)를 2.5%포인트 앞섰다.

/이국현기자 jcm@

market index <13일>

- 코스피 1963.56 (-31.02)
- 코스닥 505.00 (-5.13)
- 금리 2.94 (-0.02)
- 환율 1072.50 (변동없음)

뉴스 & 뉴스

CEO연봉 '고려대 출신' 1위

● 고려대 출신 기업가가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상장사 대표이사급 최고경영자(CEO)의 2011년 연간 보수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 출신 CEO가 1년간 받은 평균 보수는 5억53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4억6740만원), 연세대(4억1510만원), 한국외국어대(3억9810만원), 경희대(3억9080만원), 명지대(3억7440만원), 서강대(3억4730만원), 성균관대(3억4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현기자

연금복권520 제12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2조
		7조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4등	100만원	각조
5등	2만원	각조
6등	2000원	각조
7등	1000원	각조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김규흥
사장 편집인 김종현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곽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8-2600
배차센터 02)721-9851
2003년 9월 3일 등록(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86)

"경제운전 저렇게 하는구나"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친환경·경제운전 가상체험관 개관식 에서 관람객들이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망퇴직·사옥매각 … 몸집 줄이는 건설

건설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몸집 줄이기에 한창이다. 몇 년째 불황이 이어지면서 대형 건설사들마저 찬바람을 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달 말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두산건설의 경우 상반기말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신규 보증 규모가 5191억원에 달하는데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도 2200억원으로 파악된다. 또 6월 기준 부채 비율이 499.4%에 달한 동부건설도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지난 연말·연초에 이어 7월에 다시 한 번 조직을 추슬렀다. 현대건설은 미분양 판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자 기존의 마케팅팀을 없애고 유동화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서울 도곡동 사옥과 삼성역 글래스타워 매각에 나섰다. 경남기업은 1조원 규모의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매각을 통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선옥기자 pss@metroseoul.co.kr

'고용률 70%' 위한 마중물

주부·중장년 등 6000명에 기회… 재계 확산 전망

Issue & View

삼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김태균기자 ksgt@metroseoul.co.kr

삼성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이는 주부들에게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 55세 이상의 중년층에게도 제도권의 기회를 준다.

◆제조업계 최초 최대 규모 6000명 채용

삼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6000명 채용 발표는 국내 제조업계 최초이면서 또 최대 규모다. 그간 유통업계의 경우 신세계·롯데 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제조 분야에서는 삼성이 최초다. 계열사별로 ▲삼성전자 2700명 ▲삼성디스플레이 700명 ▲삼성중공업 400명 ▲삼성물산 400명 ▲삼성엔지니어링 400명 등이다. 나머지 14개 계열사에서 1100명을 선발한다.

◆LG도 '시간제' 500명 채용 발표

삼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발표는 LG·SK 등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 도입을 주저하던 다른 기업도 더 이상 머뭇거릴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삼성은 그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를 재계에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현 정부가 초기 창조경제'로 인한 혼란이 거듭되던 시기에 삼성이 이를 구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

실제 삼성 발표 이후, LG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현장 근로자 500여 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발표로 유통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계 전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IG건설 CP피해자 전원 보상받는다

LIG그룹이 14일부터 계열사인 LIG건설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전원에게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CP 투자자의 피해 보상을 마칠 계획이며 이는 구자원 LIG 회장의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LIG건설의 CP 투자자는 700여 명이며 피해액은 2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갖고 "시게를 좀 먼저 투자자의 피해를 가장 먼저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 회장은 올 초 와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투자자 200여 명에게 730여억 원을 보상했다. /김태균기자

저랑한 SOS 13일 태풍으로 폐허가 된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의 무너진 건물에 도움을 요청하는 SOS 문구가 선명하다. /AP 연합뉴스

발 묶인 구호대 발 동동

필리핀 최대 피해지역 타클로반 접근할 방법 없어 물·식량 전달 전혀 못해

슈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필리핀에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피해 지역에 전달할 방법이 없어 구호단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로와 운송체계 등 인프라 대부분이 마비돼 상당수 구호물자의 인력이 마닐라와 세부에 그대로 남아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9일 세부에 도착했지만 12일까지도 최대 피해 지역인 레이테섬의 타클로반으로 가는 이동 수단을 구하지 못해 세부섬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MSF 관계자는 "의사 15명과 긴급 의료 물품을 챙겨 서둘러 필리핀에 왔지만 피해 지역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면서 "타클로반 공항은 현재 필리핀 군만 사용하고 있어 언제 레이테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 군경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군용 헬기로 피해 지역을 오가며 물자를 나르고 이재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공군 측은 수송기로 타클로반을 오가며 물과 식량을 실어나르고 있지만 해가 지서 날이 어두워지면 착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구호물자를 운송하고 이재민 3000명을 섬 밖으로 옮겼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생존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굶주린 이재민들은 식량창고 약탈에 나섰다. 필리핀 GMA 방송은 12일 수천명의 이재민이 타클로반와 정부 식량 창고를 습격, 약 10만 가마의 비축미를 약탈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창고 건물 벽이 무너지면서 이재민 8명이 압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아기 좀…" 슈퍼 태풍 하이옌의 피해가 가장 큰 필리핀 타클로반시 공항에서 13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를 군 수송기에 태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사망자 1만명 아닌 2500명"

한편 태풍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 규모를 둘러싸고 필리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레이테섬 현장을 둘러본 유엔 관계자들은 타클로반에서 1만여 명, 인근 사마르 지역에서 2300여 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1만명은 과도한 추산"이라며 "인명 피해가 최대 250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조선미 기자 seonmi@metroseoul.co.kr

카지노 호황에 입 벌어진 마카오 "팍팍 쏜다"

전주민에 '120만원 보너스'

세계 제1의 카지노 도시 마카오가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13일 마카오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영주권을 가진 모든 주민에게 1인당 9000파타카(약 12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영주권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5400파타카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는 2008년부터 매년 주민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1인당 8000파타카를 제공, 주민 63만여 명에게 총 48억8500만 파타카의 현금 보너스를 줬다.

마카오 당국은 카지노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세수로 이 같은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당국은 카지노에서 950억 파타카의 세금을 거둬 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마카오 전체 정부 수입의 80%를 웃도는 액수다.

마카오 정부는 매년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국민에게 선심을 쓰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비난한다.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실업률 등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현금 보너스로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다.

/조선미 기자

338억원짜리 다이아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크리스티 경매에서 3150만 달러(338억원)에 팔린 환상적인 빛깔의 오렌지 다이아몬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이 희귀 다이아몬드는 14.82캐럿으로 지금까지 경매에 나온 오렌지 빛깔의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크다. /AP 연합뉴스

"위안부 법적 해결" 日 교과서 실린다

문부성 "내년부터 포함"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의무적으로 실릴 예정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문부과학성이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 검정 신청 단계에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 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에 불리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도 교과서의 의무 기술 사항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종결됐다고 주장한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다.

/하극배 기자

100인의 영웅·암흑군주 다 나와!

NEXON

무려 128개 아이템·수백가지 전략플레이 가능 ARTS '도타2'부터 모바일 MMORPG '영웅의 군단' '페리아 연대기' 등 신작 3종 체험

넥슨은 이번 지스타 B2C관에 참여하는 유일한 토종 메이저 온라인게임사다.

출품작은 '도타 2' '영웅의 군단' '페리아 연대기' 등 3종이다.

먼저 지난달 25일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도타 2'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액션 실시간 전략(Action Real Time Strategy: ARTS)' 장르를 표방하는 온라인게임이다.

총 10명의 플레이어가 각각 5명씩 '다이어(Dire)' 혹은 '레디언트(Radiant)'로 불리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자신의 영웅 캐릭터를 조작해 상대 진영으로 가는 길목의 포탑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상대 진영을 점령하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최신 소스(Source) 엔진으로 개발돼 부드러운 그래픽을 자랑하는 '도타 2'에는 총 100여 명의 개성 넘치는 영웅이 등장하며 캐릭터 간 치밀새 있는 밸런스, 체계적인 유저 간 매치 메이킹 시스템으로 흥미진진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아울러 게임 내 총 128가지의 아이템이 존재, 세팅에 따라 다양한 특성의 조합 생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영웅별 고유 스킬과 아이템을 결합해 수백 가지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어 다채로운 전략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

정식 서비스 이전부터 세계적인 e스포츠대회 WCG(World Cyber Games)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리그로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개발사인 밸브가 직접 주관하는 '도타 2'의 e스포츠대회 '인터내셔널'은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벌써 세 번째 대회를 진행했으며 '인터내셔널 2013' 대회는 총 상금 285만 달러(약 31억원)를 내걸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MMORPG 흥행 메이커의 신작

엔도어즈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 예정인 '영웅의 군단'은 '군주' '아틀란티카' '삼국지를 품다' 등 다수의 전략 MMORPG를 흥행시킨 엔도어즈 김태곤 총괄PD의 차기 모바일 신작으로, 그동안 여러 게임을 통해 다져온 개발 노하우와 고유의 게임성을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해 녹여낸 작품이다.

'영웅의 군단'은 판타지 세계를 정복하려는 암흑 군주에 맞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총 120여 종의 다양한 영웅들을 직접 육성하고 지휘하며 자신만의 팀을 구성하는 전략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방대한 스토리 라인과 턴제 방식 전투의 전략성 등 엔도어즈표 전략 MMORPG 특유의 재미 요소를 담아냈으며, 그 외에도 카드 조합을 통해 영웅을 성장시키는 '영웅 고유 시스템'과 페이스북 연동을 통한 커뮤니티 기능 등을 제공한다.

◆수준 높은 카툰 렌더링 구현

'페리아 연대기'는 넥슨과 네오위즈 등 주요 개발사 출신의 검증된 개발자들이 모여 2010년 1월 설립한 '띵소프트'가 제작 중인 MMORPG다. 자체 개발한 카툰 렌더링 엔진을 이용해 셀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포근하고 감성적인 그래픽이 특징이다.

'페리아 연대기'는 기존 MMORPG의 보편적인 클래스 구분, 장비, 스킬 등의 요소와는 차별화된 독창적인 시스템을 높은 퀄리티의 카툰 렌더링 기술로 구현함으로써, 유저에게 독특하고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게임의 주 무대가 되는 페리아 세계에서 인간과 '카라나'가 펼치는 대립과 화해를 다룬 장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게임 내 초자연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다양한 '카라나'를 수집하고 육성하는 요소, 자기만의 세계를 구현하고 공유하는 기능 역시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줄 것이다.

넥슨 게임홍보실 곽승훈 실장은 "올해 지스타 현장에서 '도타 2'를 메인으로 '영웅의 군단' '페리아 연대기'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신작을 중심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e스포츠 대회 관전과 게임 시연 등 관람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체험하실 수 있는 축제의 장에 많은 발걸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넥슨이 올해 지스타에 출품한 작품의 캐릭터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ARTS '도타2' 감성적인 애니메이션이 돋보이는 MMORPG '페리아 연대기' 국내 정식 서비스를 앞둔 모바일 MMORPG '영웅의 군단'

'도타2 슈퍼매치' 스타 플레이어 몰려온다

넥슨 70부스 규모 전시관 코스프레쇼 등 행사 풍성

넥슨 전시관은 80부스 규모로 '도타 2' '영웅의 군단' '페리아 연대기' 등 총 3개의 출품작과 '넥슨 스페셜매치' 존으로 구분되며 대규모 e스포츠 대회와 코스프레쇼 등이 열리는 '관전형' 메인 무대와 게임 시연과 현장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부스로 꾸며졌다.

또 각 게임 부스 전면 뿐 아니라 측면에 세워진 10개의 기둥에도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해 화려한 게임 영상 상영으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도타 2' 부스에서는 전 세계 도타 2 e스포츠 최강팀 초청전 '넥슨 인비테이셔널 슈퍼매치'를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이 대회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타 2 대회인 '도타 2 인터내셔널' 시즌3 우승팀 '더 얼라이언스'와 'DK' 등 해외 유명 팀들이 대거 참석해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생생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스파이럴캣츠'의 코스프레쇼와 '라이브 이벤트 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저 참여형 이벤트를 상시 진행, 다양한 팀사가 펼쳐지는 화려한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대규모의 관전 공간으로 꾸며졌다.

세 차례의 비공개 시범 테스트 이후 오픈 공간에서 처음 공개되는 '영웅의 군단' 부스는 관람객들이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32대의 태블릿 PC를 마련했다.

무대 전면에는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게임 영상이 상시 상영되며 지난 비공개 시범 테스트 이후 추가된 신규 콘텐츠를 처음 관람객들에게 공개한다.

지난해 '지스타 2012' 당시 타이틀 발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페리아 연대기'는 부스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신규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영상 상영 공간과 함께 코스프레 모델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도 함께 마련됐다. /박성훈기자

다음게임이 지스타 2013에서 선보이는 플래닛사이드2, 위닝펏, 검은사막(사진 왼쪽부터)

육해공 멀티전투 더욱 실감나네!

Daum게임

'플래닛사이드2' 2000명 실시간 게임
'위닝펏' 프로골퍼 체험 콘셉트 눈길
'검은 사막' 비공개테스트 호평 받아

창사 이래 처음 지스타에 참가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게임 3종을 출품한다.

포털 다음이 지스타에 자리를 마련한 것은 게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관람객에게 선보일 게임은 비공개 테스트에서 호평받은 펄어비스의 MMORPG '검은 사막'을 비롯해 미국 게임사 소니온라인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MMOFPS '플래닛사이드 2', 골프게임 명가 온네트에서 개발한 골프게임 '위닝펏'이다.

다음 게임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검은 사막'은 새로운 온라인게임을 기대하는 유저들에게 벌써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지스타에서 얼리어답터의 반응을 살핀 뒤 내년 1분기에 두 번째 비공개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크라이엔진3를 사용한 '위닝펏'은 뛰어난 그래픽과 프로 골퍼의 체험을 콘셉트로 한 재미 요소로 눈길을 끈다.

프로 골퍼가 직접 스윙 모션 캡처와 코스 설계에 참여해 사실성을 높였다. 다양한 스토리의 대회, 일정 스케줄링, 리더보드, 기록 통계, 시즌 랭킹 등으로 구성된 투어 시스템은 '위닝펏'만의 긴장감 넘치는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스타에서는 '위닝펏'의 시연 버전이 최초로 공개된다.

'플래닛사이드 2'는 한 공간 내에서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지는 SF MMOFPS 게임으로 북미, 유럽, 중국 등지에서 많은 접속자를 확보하고 있다. 보병전, 기갑전, 공중전 등이 동시에 벌어지는 대규모 전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2000명의 게이머들이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전투를 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은 지스타에 80부스 규모의 B2C관에 자리 잡았다. 총 100대의 PC를 설치해 신작들을 체험토록 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포코팡 고수 찾기' 일대일 배틀

NHN ENTERTAINMENT 아외 이벤트 부스 마련… 참가만해도 캐릭터 상품

인기 모바일게임 '포코팡' 고수라면 이번 지스타 기간 꼭 들러야 할 공간이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스타를 방문한 게이머들을 위해 '포코팡' 야외 이벤트 부스를 운영한다.

야외 이벤트 부스에서는 포코팡에 자신 있는 게이머라면 누구든 신청해 일대일대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티켓이 필요 없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가만 해도 귀여운 후드티와 마스크, 이어폰 마개 등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깜찍한 '포코팡' 캐릭터 상품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고득점자는 매일 결승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최종 1등에게는 '갤럭시노트3'를 상품으로 증정한다.

야외 이벤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6일에는 개발자와의 특별 대전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한편 NHN엔터의 B2B부스는 20부스 규모로 글로벌을 겨냥한 신규 브랜드인 '토스트(TOAST)' 부스를 식빵 형태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NHN엔터의 대표색인 레드 컬러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소재와 코르크 마감이 토스트 브랜드를 연상케 했다.

NHN엔터는 자체개발 대표작인 '피쉬아일랜드', '우파루마운틴'을 비롯해 인기리에 서비스중인 PC온라인게임 '에오스', '아스타', 신규 모바일게임 '레벨업', '쿠볼데이' 등 6종의 게임을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신나는 탱크전 한번 즐겨볼까

WARGAMING.NET 한-일전도 열려… 무선조종 미니전차 체험행사도

신나는 탱크전의 재미를 3년 연속 지스타에서 즐길 수 있다.

MMO 전략 게임 전문 개발 및 퍼블리셔인 워게이밍은 '지스타 2013'에 60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워게이밍 부스에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탱크: 엑박스360 에디션',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 게임존을 마련해 게이머들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월드 오브 탱크'를 즐길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자존심을 건 '월드 오브 탱크' 한-일전도 열린다. 게임방송 인기 BJ '안티노라'와 '클라임캣'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 이벤트전을 해설할 예정이다.

특히 가수 손담비와 인기 걸그룹 '크레용팝'이 워게이밍 응원군으로 다시 공연을 펼친다. 또 하음미, 바서현, 육지애 등 인기 레이싱 모델들도 워게이밍 걸로 나선다.

게이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워게이밍 부스 현장에서 모집한 참가자들을 한 팀으로 구성해 10단계 전지로 전투에 참여하는 '최고의 전차장 선발전'과 7대7로 워게이밍 부스 모델을 지키는 '월탱걸을 지켜라', '워게이밍 직원들과 대전을 즐기는 '워게이밍을 잡아라'가 진행될 예정이다.

야외 부스에서는 무선 조종 미니 전차인 'RC탱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 안에 레이스를 완주하는 관람객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워게이밍의 지스타 참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 오브 탱크' 공식 홈페이지(www.worldoftank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블리자드가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지스타에 나타난다. 출품작은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 등 4종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 III 최신 확장팩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 포스터(위)와 정식 출시를 앞둔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의 게임 장면. 디아블로 III 최신 확장팩은 지스타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다. /블리자드 제공

- 캐릭터 힘 상향조정
- 현상금 사냥도 추가

'디아 III' 강력하게 돌아왔다

디아블로 III 확장팩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는 2014년 정식 출시를 앞두고 지스타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다.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아블로 본사 개발진으로부터 생생한 개발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역할수행게임 디아블로는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 사후 사악한 어둠이 다시 찾아오자 이를 막기 위한 전사들의 줄거리로 펼쳐진다. 이번 확장팩에서 이용자는 디아블로 III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전설 속 도시와 혼돈의 고대 전당을 누비게 된다. 게임 속 캐릭터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레벨을 최대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새로운 기술과 능력이 추가됐다. 악에 맞서 싸우는 거대 담론 이외에 현상금 사냥 시남터 게임 등으로 게임 속 게임 재미도 강화됐다. 강화된 소셜 시스템으로 동맹들과 접속을 타지는 읨도 디아블로의 게임 포인트다.

◆게임 영웅들 한자리 '더 스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팀 단위 게임으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게임 캐릭터가 총출동한다. 블리자드 게임의 역사와 세계관 대표 캐릭터를 고루 접할 수 있다.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시리즈에 등장한 용사들과 악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전투를 벌이는 형식이다. 각각의 영웅들은 다양한 전략을 발휘하며, 자신이 원래 출연하던 게임에서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능력을 선보인다. 다양한 게임 속 캐릭터를 선택해 자신의 게임 방식에 맞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점이 또 다른 재미다. 여러 전장에서 펼쳐지는 긴박하고 개성 넘치는 전투. 다른 장르의 게임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전하는 방식이 인기 요소다.

◆화려해진 '전쟁군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드레노어의 전쟁군주'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다섯 번째 확장팩으로 역사 속 워크래프트 격동기로 돌아간 전설적 영웅들이 힘을 합쳐 최강의 전쟁 군주들과 대결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지닌다. 전설 속 영웅이 된 이용자는 전투의 상흔이 가득한 평원을 가로지르면서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그롬마쉬 헬스크림, 블랙핸드, 넬쥴 등 전설 속 투사들과 힘을 겨뤄야 한다. 이용자는 가혹한 드레노어의 세계를 탐험하며 동맹을 찾아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다. 설계할 경우 비극적인 전쟁 역시 반복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확장판에서는 원하는 캐릭터를 즉시 90레벨까지 성장시킬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종족들의 캐릭터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을 화려하게 개편했다.

총 4종 신작 공개… 생생한 개발 뒷이야기도

◆카드 게임+소셜 '하스스톤'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은 디지털 전략 카드게임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놀랄 만큼 쉽고 믿기 힘들 만큼 재미있습니다'란 슬로건의 이 게임은 친숙한 카드게임에 소셜 기능을 접목했다. 이 게임은 워크래프트를 대표하는 영웅 9명이 캐릭터로 등장하며 이용자 전략에 따라 레수인 주문 무기 카드들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실전 게임을 시작하기 전 컴퓨터와의 연습 경기를 통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도전할 자신이 생기면 자신의 친구 또는 다른 이용자들과 친선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이때 카드 제작, 대전에서 승리 카드팩 구입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전투력을 높일 수 있다. 수백 가지 카드들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조합이 묘미다. 블리자드 지스타 출품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모바일 페이지(http://kr.blizzard.com/promo/ko/m/gstar/)에서 확인 가능하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백영재 대표이사는 "블리자드 부스에서 릴리즈킨 2013 기대작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다채로운 무대 행사도 즐기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효진기자 unique@metroseoul.co.kr

프로게이머 스타크 대결보고 경품 받고

블리자드 100부스 운영… 참가업체 중 최대

블리자드는 총 100부스, 총 140대의 시연 PC로 올해 지스타 참가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도 대거 공개된다. 특히 지난 8월 독일 게임스컴에서 처음 공개된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는 지스타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선보인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한글화된 최신 버전으로 체험해볼 수 있게 했다. 400인치 HD급 LED 스크린이 장착된 중앙 무대에서는 블리자드의 지스타 출품작들이 화려한 영상으로 소개된다.

지스타가 열리는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엄재경 e스포츠 해설가와 스타크래프트 II 이유라 프로게이머가 진행하는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 이벤트 대전이 펼쳐진다. 이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디아블로 III' 확장팩과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본사 개발자들이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 팬들에게 직접 게임을 소개하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4일과 1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명 프로게이머 김민철, 조성주, 이제동 그리고 정민활 선수가 직접 경기를 펼치는 '스타크래프트 II: 군단의 심장' 이벤트 대전이, 16일과 17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삼성전자 칸 프로게임단 SK텔레콤 T1 KT 롤스터 팀이 출연하는 온게임넷 '스타행쇼' 공개 방송도 팬들을 찾아간다.

이 밖에 블리자드는 현장 블리자드 스토어에서 디아블로 III 한글판, 블리자드 아트북 지금껏 볼 게 인연 유다전과 케이스 등 다양한 게임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모든 구매 고객은 선착순으로 블리자드 티셔츠와 디아블로 인증키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양윤희기자

크레용팝·장미여관…올해도 'B급 열풍'

멜론 뮤직 어워드' 후보 통해 본 올해의 가요계

14일 열리는 '2013 멜론 뮤직 어워드'를 시작으로 연말 음악 시상식이 줄줄이 개최된다. 연기아이돌 그룹 위주로 편향됐던 음악 시장은 올해 들어 다양한 가수와 장르의 음악들로 풍성해졌다. 시상식 후보를 통해 올해 음악계를 돌아본다.

◆ 남자 아이돌 팬덤 업고 비상

엑소는 '늑대와 미녀', '으르렁'을 연속으로 히트시키며 100만 장에 육박하는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다. '멜론 뮤직 어워드' 톱 10을 뽑는 온라인 1차 투표에서 득표율 24%로 1위를 기록했고,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에서도 '올해의 가수', '남자 그룹상' 등 주요 상 수상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4년 만에 정규 2집을 발표한 빅뱅의 지드래곤은 컴백과 동시에 타이틀곡 '니가 뭔데'를 비롯해 블랙, '삐딱하게', 쿠데타 등을 모두 차트 10위권 안에 진입시키며 '줄세우기'를 보여줬다. 이들 외에 비스트와 샤이니도 새 앨범을 발표해 더욱 단단한 인기를 확인했다.

◆ 키치한 매력 재기발랄 무대매너 '핫 트렌드'

멜론 뮤직 어워드의 '핫 트렌드' 상 부문 후보를 보면 가요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싸이의 영향력이 적지 않게 작용하면서 코믹하면서도 키치한 매력에 대중은 열광하고 있다.

'빠빠빠'를 히트시킨 크레용팝(사진)은 '여자 싸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록밴드 장미여관은 기발한 가사와 복고풍의 '오래된 인연'이 대중의 공감을 사며 인기를 얻었다.

◆ 히트곡의 완성 피처링 열풍

가요계에 유행처럼 번진 피처링 열풍은 올해도 계속됐다.

피처링은 히트곡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정도다.

많은 피처링 가수 중 에일리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그가 참여한 배치기의 '눈물샤워', 긱스의 '와시 어웨이', 버벌진트의 '이게 사랑이 아니면'은 각각 멜론 뮤직 어워드의 '랩 힙합'과 MAMA의 '베스트 랩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장승주기자 sunz@metroseoul.co.kr

흥행 스코어? 차기작 기회 생기면 족해

오늘 개봉 '친구2' 곽경택 감독

2001년 신드롬을 일으킨 '친구'의 성공 후 꼭 12년 만이다. 곽경택 감독이 울산을 배경으로 준석(유오성)의 17년 후 이야기와 1편에서 죽은 동수(장동건)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푸는 속편 '친구2'(14일 개봉)로 돌아왔다.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감독을 한 지 17년째인데도) 여전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긴장된 속내를 숨기지 못했다.

—12년 만에 속편을 선보이는 감회는

평소 낙천적인 성격인데, 긴장 속에 만든 작품이다. 과정 역시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1편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다시 모이면서 당시 막내들이 베테랑이 돼 있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고 반갑고 고마웠다.

—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속설이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2편은 1편에 뿌리가 있다. 1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였는데도 개봉 당시 8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2편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3대에 걸친 남자 이야기
촬영기간은 긴장의 연속
'친구' 후 10년 끊고싶어

— 준석을 중심에 두면서 그의 아버지 철주(주진모)와 동수의 숨은 아들 성훈(김우빈)의 이야기까지 곁들여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여러 시대를 넘나든다

우리 아버지가 80대, 나는 40대, 내 아들은 20대다. 극중 다른 시대를 산 세 남자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고민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중 준석이는 내 감정이 가장 많이 이입된 인물이다. 그가 자업하게 싸웠지만 17년간 감옥에서 냉동인간처럼 살았듯 나 역시 지난 12년간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손에 쥔 게 없더라. 그런 고민에서 탄생했다.

— '친구'의 성공이 좋기만 하진 않았나 보다

삶이라는 게 갑자기 출세를 하면 당황하게 돼 있다. 나 역시 일거 무명 감독에서 수직 상승했다. 그 후로 지독히도 운이 없었다. 이젠 그 지난 10년을 끊고 싶다. '친구'가 300만~400만 명만 들고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면 나도 젊은 혈기를 좀 눌렀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곤 했다.

—당시와 비교해 삶이 많이 바뀌었다

많이 신중해졌다. 30대 중반과 40대 후반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전 작품들의 흥행 부진으로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관객을 500만 명을 동원해도 돈은 벌지 못한다. 다만 이를 계기로 (영화를 할 수 있는) 2~3번의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고, 이젠 욕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 (웃음)

— 유오성과 이번에 고민을 털어 나눴겠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사이가 멀어졌지만) 촬영 전 불편했던 앙금은 서로의 노력으로 많이 걷어냈다. 우리 둘 다 어느덧 50세를 바라보는 나이다. 다시 친구가 돼서 기쁘다.

— 김우빈의 연기도 인상적이다

캐스팅 당시 우빈이가 KBS2 '학교 2013'을 찍을 때였다. 덩치도 좋고 어깨도 넓고 사납게 생겼더라. 남성호르몬이 흘러넘치는 게 딱 보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배우들이 다들 너무 맛있게 잘해줬다. 이들이 산다면 난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지런히 영화를 찍는 감독으로 남고 싶다. /석근희기자 tahoo421@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기자·프로덕션 디자인/석은지

star bag

'쓰리데이즈'서 박유천과 호흡

배우 박하선이 내년 2월 방영될 SBS 새 드라마 '쓰리데이즈'(가제)에서 JYJ 박유천과 호흡을 맞춘다.

13일 제작사 골든썸픽처스에 따르면 저격 위협에 처한 대통령과 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호원의 이야기를 그릴 이 드라마에서 박하선은 음모에 휘말린 엘리트 경호원 한태경(박유천)을 도와주는 결단 있고 여려한 여순경 윤보원 역을 맡았다.

'고양이 장례식'으로 스크린 컴백

슈퍼주니어 강인이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13일 소속사에 따르면 강인은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고양이 장례식'에서 남자 주인공인 인디 뮤지션 동훈 역을 맡아 이달 중순부터 촬영을 시작한다.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 이 영화는 헤어진 연인과 함께 키우던 고양이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옛 애인과 1년 만에 만나 떠나는 1박2일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스폰사진은 합성"… 유포자 기소

여성듀오 다비치의 강민경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 2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김모(32)씨 등은 3월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엄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별에서…' 첫 촬영현장 스틸 공개

배우 김수현이 다음달 25일부터 방영될 SBS 새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의 첫 촬영 모습을 공개했다.

극중 400년 전 지구에 온 외계남 도민준 역할을 맡은 그는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첫 촬영을 진행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앞으로 도민준으로 지낼 시간이 많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누드사진 파문' 에일리 "…"

일본 프로모션 마치고 조용히 귀국

누드사진 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가수 에일리가 13일 일본 프로모션을 마치고 귀국했다.

누드사진 파문이 일고 난 후 이틀 만이다. 이미 소속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향후 대책 등을 밝힌 에일리는 조용히 한국에 휴식 시간을 보내며 미음을 추스를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일본 프로모션을 지장 없이 소화한 그는 14일 예정된 2013 멜론 뮤직 어워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에일리는 이 시상식의 사전 온라인 투표에서 음원을 빛낸 톱 10에 선정됐다.

그러나 에일리의 모습을 담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경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11일 한류 사이트 올케이팝을 통해 에일리의 누드사진이 유출된 가운데 에일리 측은 누드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잡기 위해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병철기자 ybc@

에일리가 11일 일본 프로모션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욕하며 보는 두 드라마

<오로라 공주 기황후>

오로라공주 막장비판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기황후 역사왜곡 논란에도 연기는 '고공행진'

MBC 일일극 '오로라 공주'와 월화사극 '기황후'(사진)가 거센 논란 속에서도 인기가 연일 치솟고 있다.

시청률 집계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2일 방영된 '오로라 공주' 시청률은 전국 기준 17.2%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1.0%포인트 오른 수치로,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방영 초반부터 비상식적인 설정, 주요 배우들의 이유 없는 중도 하차, 과도한 연장 등으로 '막장 중의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욕하면서 본다'는 속설처럼 잡작 논란이 도움이 된 셈이다.

특히 당초 계획된 120회에서 30회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최근 25회 추가 연장설이 불거져 인터넷에서 '연장 반대 서명운동'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연장을 할지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영 전부터 극심한 역사왜곡 논란에 휘싸였던 '기황후' 역시 회가 거듭될수록 시청률이 높아져 방영 6회 만에 16.3%까지 치솟았다.

고려 정벌을 명하는 등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기황후를 미화한다는 지적에도 흥미로운 스토리와 하지원 등 주연배우들의 열연, 화려한 영상미 등으로 호평을 받으며 인기 상승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현상에 더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평론가는 "막장이나 역사왜곡 등의 논란이 오히려 시청률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인기가 높아질수록 시청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커져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커지므로 경계할 일"이라고 말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앞치마 두른 싱글턴 '5분 요리' 화려하네

"1인가구 고급 입맛 잡자" 식품업계 즉석제품 진화

'1인 가구 453만 시대' 네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인 요즘 싱글턴(Singleton, 1인 가구)이 신(新)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유통·외식업체들이 이들을 공략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독신 남녀와 주말 부부, 대학 자취생 등 혼자 살면 무엇보다 고민되는 먹거리 해결을 위해 식품업계에서는 이들을 위해 간단한 조리법으로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볶음요리 뚝딱… 전용 두부 출시

풀무원식품은 볶음요리 전용 '쥐리 볶아 고소한 일품 볶음요리 두부'(300g·3200원)를 최근 출시했다. 일반 포장 두부 대비 부서짐이나 으깨짐이 없게 요리가 서툰 초보 주부나 남성들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종 요리 소스와 함께 채소, 고기, 채소 등을 넣어 볶기만 하면 마파두부, 두부 짜볶이, 짜장 두부 등 다양한 두부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반찬 필요 없는 만능 고추장

CJ제일제당은 맛과 편의성을 높인 수라상에 올리던 '약고추장'(500g·9700원)을 최근 내놨다. 전통 궁중 별미인 '약고추장'을 현대적인 맛과 스타일로 구현한 이 제품은 볶음쇠고기, 표고버섯, 해바라기씨, 꿀 등을 넣어 볶은 편의성 고추장이다. 기존 요리 소재로만 활용되던 고추장이 아닌 '만능 요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염념 없이 간편하게 밥이나 면에 비벼 먹을 수 있다.

◆파스타 샐러드용 소스도 다양

샘표는 이탈리아 특색을 살린 폰타나 파스타 소스(250g·3650원)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총 4종으로 '나폴리 바질 토마토 파스타소스', '토스카나 포게 파스타소스', '로마 로스티드 갈릭크림 파스타소스', '시칠리아 레드페퍼 크림 파스타소스' 등이다. 폰타나 파스타 소스는 이탈리아 고유의 레시피를 적용해 이탈리아 요리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제품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장시간 우려낸 치킨 스톡(stock) 등 정통 원재료로 만들어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한다.

대상 청정원은 냉장 드레싱을 미니 사이즈로 새롭게 선보였다. '참깨흑임자 드레싱', '오리엔탈 드레싱', '파인애플 드레싱', '그린키위드레싱' 등 총 4종(100~105g·1600원)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수입 중 가처분 소득 비중이 3, 4인 가구의 두 배 이상으로 소비 여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식품업계를 포함한 유통업계 전반에서 소용량과 간편식품 등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상품들이 꾸준히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연불기자 ...@metroseoul.co.kr

셰프 만난 '통영 굴' 럭셔리한 맛

스탠포드호텔 특선요리

서울 상암동 DMC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www.stanfordseoul.com)이 통영 앞바다에서 매일 아침 산지 직송된 신선한 굴을 맛볼 수 있는 '통영 굴 특선요리'를 선보인다.

기존의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이기 위해 스탠포드호텔은 통영시와 직접 제휴를 맺었으며 프로모션은 셰프가 직접 엄선한 최고 품질의 통영 굴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선요리는 굴 구이, 어향 소스 굴 요리(중식), 굴 튀김, 굴 짬뽕 등을 포함한 6가지 요리로 구성되며 특히 라이브 뷔페로 제공되는 굴 구이는 호텔 셰프가 정성스럽게 구워주는 패싱 서비스로 맛볼 수 있다.

스탠포드호텔 관계자는 "통영 굴은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칼슘 등이 풍부해 빈혈에 좋으며 굴 속에 함유된 타우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문의 02)6016-0080 /황숙희기자

강강술래 "김장용 천일염 팍팍 씁니다"

힐링서적 증정행사도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충판그룹 갈빗과 손잡고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하루 30분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11월 추천 도서인 김두영의 힐링 여행서적 '유럽여행 핵심사전 500'과 하버드 정신과 의사 조셉 슈랜드가 말하는 분노 다스림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을 선물한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천일염 무료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말까지 대용량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600㎖ 5팩·15인분)는 3만7800원, 박스 세트(600㎖ 10팩·30인분)는 7만56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신송식품의 신안바다천일염(1.5kg·5000원)을 사은품으로 준다.

신림점은 15일, 삼계점은 22일까지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천일염(3kg)을 공짜로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정선 레일바이크' 모바일 앱 출시

코레일관광개발이 정선 레일바이크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정선 레일바이크는 폐철로를 활용해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운행하는 철길 자전거로 앱은 레일바이크 잔여 대수를 실시간 제공하며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예약 및 결제 등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 레일바이크 출발지인 구절리역에 위치한 기차펜션의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이경태 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정선 레일바이크와 기차펜션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테마파크다. 앞으로도 모바일 서비스를 비롯해 언제 어디서든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선테마파크, 레일바이크, 기차펜션 등의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황재용기자

마스타카드로 항공권 예약땐 '행운'

에어아시아 엑스 한달간 한국 취항 3주년 이벤트

에어아시아 그룹의 장거리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가 11월 한 달간 마스타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에어아시아 엑스의 한국 취항 3주년을 기념해 진행하는 한국 출발 한정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인천~말레이시아 왕복 항공권(1명), 루이비통 여권 지갑(20명), 호텔 예약 상품권(50명), GS칼텍스 5만원 상품권(100명) 등 총 171명에게 푸짐한 선물이 주어진다.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에어아시아 홈페이지(www.airasia.com)에서 마스타카드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문정 에어아시아 엑스 지사장은 "2010년 에어아시아 엑스가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만 해도 한국 승객보다는 동남아시아 승객이 배 이상 많았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비슷할 정도로 에어아시아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며 "앞으로도 한국 승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의 항공권과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윤기자

가맹점 창업 생각한다면 '강정구의 피자생각' 해요

피자 브랜드 '강정구의 피자생각'이 가맹점을 모집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비용은 2900만원으로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매장 크기는 10~30평 안팎으로 테이크아웃에서 배달까지 겸할 수 있으며 상권이나 매장 규모에 따라 커피와 피자 카페형 복합매장의 구성이 가능하다.

전국 배송 시스템을 갖춰 각종 물류를 직접 배송하고 홍보와 초기 오픈 시 철저한 교육, 기술 지원 등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문의 1588-8599

'콜라보'로 진화하는 패션

H&M '이자벨 마랑 클렉션' 써코니 '보더가 운동화' 등 타 브랜드·예술가 숨결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즐거움

패션업계가 유명 브랜드나 디자이너, 셀럽들과 협업(콜라보레이션)에 나서며 변신을 꾀하고 있다. 불황 속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글로벌 SPA 브랜드 H&M은 프랑스 패션 브랜드 '이자벨 마랑'과 협업한 컬렉션을 공개했다.

14일 전 세계 250개 매장에서 동시에 판매를 이번 컬렉션은 이자벨 마랑의 우아하면서도 도시적인 디자인 특성을 잘 녹여 여성·청소년·남성 의류와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선보인다. 디자이너 이자벨 마랑은 "이번 컬렉션은 편안하면서도 개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개인 감각에 따라 자유롭게 섞어 착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브랜드 써코니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편집숍 보더가와 콜라보레이션한 '보더가 엑스 써코니 엘리트 쉐도우 6000 팩' 한정판을 출시했다.

아프리카 가나 지역의 전통 의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번 제품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16일 편집숍 '카시나'의 명동점 압구정점 홍대점 3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MCM은 팝 아티스트 크릭&칼과 손잡고 '비욘드 스노우돔'을 내놨다.

크릭&칼은 뉴욕과 런던 등에서 활동하는 팝아트 분야의 각광받는 디자이너로 이미 MCM과는 지난 봄 여름 시즌에 '수평의 눈' 컬렉션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스노우돔 컬렉션에는 겨울의 전경을 재치 있고 정교하게 디자인한 흑색 도트 무늬가 돋보인다. 15일부터 판매되는 컬렉션에는 백팩, 보스턴백, 브리프케이스, 파우치, 지갑 등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더 셀러브리티는 배우 장동건과의 협업 상품인 '디렉터스 체어'를 선보였다.

디렉터스 체어는 장동건이 사랑하는 영화감독과 배우들의 열정을 응원하고자 직접 제안했으며 디자인·소재·컬러 선택 등 상품 개발 전반에 참여했다. 장동건은 "앉으면 앉을수록 몸에 꼭 맞는 맞춤 의자가 되도록 디자인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아디다스 삼바 축구화 출시 "메시도 신어요" 아디다스가 13일 서울 잠실동 신라호텔에서 2014 FIFA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의 삼바 댄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아디다스 삼바 컬렉션' 축구화 4종을 선보이고 있다. 삼바 컬렉션 축구화는 에너지 넘치는 브라질 삼바 댄스의 열정을 빨강·노랑·파랑·보라색 등 화려한 컬러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페르난도 토레스·손흥민 구자철 등이 착용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21일 아디다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합뉴스

제일모직-위젠 손잡고 자선펀딩 '하트 캠페인'

제일모직 패션 부문은 온라인 자선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업체 위제너레이션(이하 위젠)과 함께 자선 펀딩 캠페인 '하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기업·개인 단체가 소셜네트워크 등 온라인상의 결집력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을 말한다.

하트 캠페인은 저소득 청소년 학습비 지원, 폭력 피해 아동 미술 심리치료비 지원, 장애 아동을 위한 병원 건립기금 보급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이번 하트 캠페인에는 가수 션과 배우 박정수를 비롯해 밴드 가을방학 등이 응원스타로 참여한다. 이번 하트 캠페인은 27일까지 진행되며, 위제너레이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유산균아, 겨울 위장 깨워줘

활동 줄어드는 계절 발효유 제품들 도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장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위장 활동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식음료기업들이 겨울철 장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독특한 유산균 콘셉트 제품으로 겨울철 음료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약품의 '헬씨올리고'는 유산균이 함유돼 있지 않은 유산균 음료다.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 생존력이 높은 갈락토 올리고당을 통해 장에 이로운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야쿠르트의 장 건강 발효유 '7even'은 건강한 아기의

장에서 사는 7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00억 마리를 담은 제품으로 유해 독소가 증가한 장 환경 개선을 돕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그릭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 유산균도 1500억 마리 이상 들어있어 몸매 유지와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롯데푸드는 국내 최초로 100%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파스퇴르 '오직 우유 100%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요구르트'를 선보였다. 정부의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목장의 1등급 원유와 유산균만 넣은 제품으로 락토바실러스균을 비롯해 3종의 유산균이 500억 마리 이상 들어 있어 장 건강에 좋다. /정해욱기자 amu@

뉴스 & 뉴스

'프라이드 오브 ' 2기 모집

● KT&G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고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상상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6일까지 대학생이면 누구나 4명으로 1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온라인 응원점수를 합산해 25개 팀을 최종 선발한다. 이들은 내년 1월 중에 일본 오사카와 교토, 나라 지역에서 우리 역사를 탐방할 계획이다.

구찌 '문화유산 보전 캠페인'

● 구찌는 문화유산 보전 프로젝트 '나의 사랑 문화유산' 캠페인 시상식에서 첫번째 수혜자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의미 깊은 문화유산들 중에서 최우수상 작인 '나의 사랑 문화유산상'은 왕궁 자관어린이집에 돌아갔다.

이밖에 서울 계부동 성결교회, 정산동 인근 한옥 한울살, 해방촌 해병대 코대교회, 아현동 웨딩거리 등도 수혜지에 이름을 올렸다.

FA 강민호 4년 75억 '몸값킹'

역대 최고대우 팀 잔류 "자존심 세워줘서 감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롯데 자이언츠의 '안방마님' 강민호(28·사진)가 프로야구 역대 최고 몸값 기록을 세우며 팀 잔류를 선택했다.

롯데는 13일 강민호와 4년간 총액 75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5억원에 연봉 1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5년 삼성 라이온즈와 4년 최대 60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던 심정수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대우다.

강민호는 2004년 2차 3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해 통산 1028경기에서 타율 0.271, 안타 903개, 홈런 125개, 타점 512개를 기록했다. 세 차례(2008·2011·2012년)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내 최고 포수로 자리매김했다.

▲역대 프로야구 FA 계약 톱10

연도	선수	포지션	계약 팀	기간	총액
2014	강민호	포수	롯데	4년	75억원
2005	심정수	외야수	현대→삼성	4년	60억원
2012	이택근	외야수	LG→넥센	4년	50억원
2013	김주찬	외야수	롯데→KIA	4년	50억원
2008	장성호	내야수	KIA	4년	42억원
2004	정수근	외야수	두산→롯데	6년	40억6000만원
2007	박명환	투수	두산→LG	4년	40억원
2005	박진만	내야수	현대→삼성	4년	39억원
2012	정대현	투수	SK→롯데	4년	36억원
2008	조인성	포수	LG	4년	34억원
2011	박용택	외야수	LG	4년	34억원
2013	정성훈	내야수	LG	4년	34억원
2013	이진영	외야수	LG	4년	34억원

롯데는 강민호를 잡기 위해 11일 1차 협상 때부터 FA 중 역대 최고 대우는 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강민호는 구단에 감한 신뢰를 보내며 올해 16명의 FA 중 가장 먼저 계약서에 사인했다.

강민호는 "자존심을 세워줘 감사하다. 나에 대한 진정성과 올 시즌 성적 부진에도 마음으로 다가와준 구단에 진심으로 고맙다"며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과 그동안 성원해준 팬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겨우내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팀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재우 롯데 단장은 "강민호는 리그를 대표하는 포수이고 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에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려고 했다"며 "구단을 믿어준 강민호가 고맙다. 앞으로도 팬들이 바라는 야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re@metroseoul.co.kr

삼성 대만 입성…"亞 최강 자리 되찾을 것"

2013 프로야구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가 2년 만에 아시아 정벌에 나선다.

3년 연속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한 삼성은 15~20일 대만 타이중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아시리즈에 출전하고자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했다.

삼성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해 겪은 아픔을 씻어내고 아시아 최강 클럽팀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팀으로는 2011년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특인 국내에서 열린 지난해엔 예선 탈락의 수모도 겪었다.

삼성은 윤성환·장원삼·릭 밴덴헐크 등 선발 자원 3명과 수호신 오승환, 키스톤 콤비 김상수·조동찬, 오른쪽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최형우가 결장한다. 삼성은 대신 김희걸·이동걸·백정현 등을 불러들여 마운드를 보강했다. A조의 삼성은 15일 포르티투도 볼로냐(이탈리아)와 첫판을 벌이고, 17일 통이 라이온스(대만)와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박성훈기자

삼성 라이온즈 류중일 감독과 선수들이 13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키스, 추신수 영입 1순위 노린다"

CBS 스포츠 보도

자유계약선수(FA) 추신수(31·사진) 영입전이 미국프로야구 최고 명문 구단 간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추신수에게 관심을 보이던 구단들 중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본격적으로 영입 작전을 펴기 시작했다. 13일 CBS 스포츠에 따르면 외야수 커티스 그랜더슨과 결별에 들어간 양키스가 추신수와 베테랑 외야수 카를로스 벨트란을 영입 1순위로 올려놨다.

CBS 스포츠는 양키스의 전력 보강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추신수와 벨트란은 FA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선수"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추신수와 함께 올해 FA 톱 3로 꼽히는 보스턴의 외야수 자코비 엘스버리에 대해 "양키스의 보강 전략에서 두 선수에게 밀린다"고 분석했다.

양키스는 스즈키 이치로(40), 버넌 웰스(35), 알폰소 소리아노(37) 등 30대 중반을 훌쩍 넘은 선수들이 외야진을 구성하고 있어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하다. 뉴욕 언론은 젊은 피 수혈을 위해 장타력과 정확성을 겸비한 추신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양키스의 오랜 라이벌인 보스턴은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 전력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추신수 영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스턴 글로브는 레드삭스가 올 시즌 톱 타자로 맹활약한 추신수를 무척 탐내고 있다. 내셔널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한 출루율(0.423)과 볼넷(112개) 등이 보스턴의 관심을 자극했다.

SB 네이션과 블리처리포트도 추신수의 끈질긴 모습이 보스턴와 톱 타자로 이상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엘스버리를 FA 시장에 내놓고 추신수와 계약한다고 해도 보스턴이 지급해야 할 몸값은 큰 차이가 없어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추신수와 엘스버리 모두 '악마'로 불리는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의 고객이라는 점이 계약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프로농구 전적 13일

동부	0	0	0	0	001
모비스	0	0	0	0	002
LG	0	0	0	0	000
전자랜드	0	0	0	0	000

프로배구 전적 13일

흥국생명	0	0	도로공사
대한항공	0	0	LIG 손해보험

리디아 고 '영향력 있는 10대'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뉴질랜드 교포 골프 선수 리디아 고(16·사진)를 '올해의 영향력 있는 10대'로 선정했다.

타임은 13일 인터넷판에 보도한 이 기사에서 리디아 고를 두 번째로 거론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뒀으며 올해 프로로 전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8세 이상인 자에게 회원 자격을 주는 LPGA 투어가 리디아 고에게는 예외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보경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리디아 고는 올해 LPGA 투어 캐나다오픈 2연패에 성공했고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뉴질랜드오픈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프로 통산 4승을 거두고도 아마추어 신분 탓에 상금을 받지 못한 리디아 고는 지난달 프로 전향을 선언했다. 현재 세계 랭킹은 4위다. /장성윤기자 ysun@